

밤섬

'돌격 건설'이라는 기치를 걸고 자행된 여의도 개발 사업에 의해 밤섬에 살던 400여 명의 주민들은 강제 이주되었고, 1968년 2월 마을은 폭파되어 윤중재 공사를 위한 골재를 제공한 뒤 한강 위로 몇 개의 바위 덩어리만 모습을 드러낸 채,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갔다. 그 후 5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밤섬은 자연 복원되어 2012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다. 이 지역은 의도치 않게 도시의 한 가운데 남겨져 스스로 자라난 이 도시의 그늘이자 유산인 섬이다.

서울에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밤섬을 봐온 나는,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감각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써 이곳이 궁금했다. 이후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서울시로부터 촬영 허가를 받았고, 2011년부터 '인간이 파괴하고, 자연이 복원한 섬'에 배를 타고 들어가 무질서한 자연과 그 뒤로 보이는 작은 도시 생태계를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공존'은 서로의 존재와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우리가 바라본 밤섬은 철새 도래지에 불과했지만, 밤섬은 이제 '생태도시, 서울'을 꿈꾼다.

Bam Islet

In 1968, about 400 residents of Bam Island,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Han River in Seoul, were forcibly relocated and the island was destroyed for the development of Yeouido. For a long period of more than 50 years, Bamseom Island was naturally restored and designated as Ramsar Wetland in 2012. In other words, the area is a shadow and heritage of the city that was unintentionally left in the middle of the city and grew on its own.

Having lived in Seoul and seen Bam Island since childhood, I was curious about this place as an area that everyone knows but has never entered. I was given permission to take picture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ince 2011, have entered the "Island Destroyed by Man and Restored by Nature" by boat and recorded disorderly nature and the small urban ecosystem behind it. The true meaning of "coexistence" becomes possible only when we accurately recognize each other's existence and values. We all know Bam Island is just a habitat for migratory birds, but Bam Islet dreams that Seoul will become an ecological city.